KT스카이라이프, 인수 5년 만에 KT HCN 흡수합병 추진

합병 예정일, 내년 6월 30일
중복 기능 통합, 사업 시너지 강화

노조 "2500억 손실 초래한 인수"
경영진 책임, 졸속합병 중단 요구



생성형 AI로 만든 KT스카이라이프의 KT HCN 흡수합병 이미지.

KT스카이라이프가 KT HCN 인수 5년 만에 흡수합병을 추진한다. 중복 조직을 통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재무 개선을 위한 목적이다. 다만 노조 반발에 따라 정부 합병 심사 과정에서 고용안정 문제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3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최근 KT HCN 흡수합병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KT HCN은 소멸하고 보유 자산은 KT스카이라이프에 귀속된다.

합병 비율은 1대 0이며, 합병 예정일은 내년 6월 30일이다. 회사 측은 "현대 HCN 인수 후 조건부 승인으로 별도법인을 3년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합병 이유는 KT HCN의 케이블TV 지역 영업망과 콜센터, 전산시스템 등 운영 기능 통합이다. 자회사 KT HCN의 중복 기능을 줄여 사업 시너지를 높인다는 취지다.

양사 간 중복 사업은 그룹사 KT의 통신망을 활용한 IPTV와 초고속인터넷 등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초고속 인터넷 '스카이 인터넷'과 IPTV 서비스 '아이핏 TV'를 운영하고 있으며, KT HCN도 KT망 인터넷과 '아이핏TV_H'를 운영 중이다. 알뜰폰의 경우 KT 스카이라이프 모바일 상품을 KT HCN이 위탁판매 하는 구조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조는 합병 추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언론노조 스카이라이프지부는 지난 19일 낸 성명을 통해 "(HCN의)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진과 이사회는 KT 출신들이 장악했다. 인수는 결국 2500억원이 넘는 재무적 손실을 초래하며 스카이라이프의 경영 기반을 뒤흔들었다"고 주장했다. 인수 합병을 추진하기 이전에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KT스카이라이프는 2021년 KT HCN(당시 현대HCN)을 약 5151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유료방송 시장 경쟁력 강화와 지역 기반 확대 등을 기대했지만, 인수 이후 가시적인 투자 성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당시 경영진들은 인수 대금의 절반 수준인 2527억원을 미래에 발생할 초과 수익 가치로 인정해 최종 인수를 결정했지만, 이후 실적 부진 등으로 해당 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계상 손실 처리되며 투자금 회수에 실패했다.

여기에 과거 합병을 위해 2년 전 진행한 외부 컨설팅 결과에 따르지 않은 점도 졸속 합병이라는 비판에 힘을 싣는다. 당시 컨설팅 업체는 9가지 선결과제를 우선 시행 후 판단하라고 회사에 권고했다. 노조는 해당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스카이라이프 이사회의 합병 추진 의결을 중단하라는 입장이다.

노조의 반발은 향후 정부의 합병 심사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고용안정과 시청자 보호 등 공익적 요소도 주요 검토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KT스카이라이프 측은 앞으로 합병 후 통합(PMI)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방송의 공공성과 이용자 보호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콘텐츠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LG U+, 7개국 통신사와 해외여행 혜택 공유

해외 여행 멤버십 서비스 '원더조이'
日 돈키호테 최대 7% 할인 등 제공



LG유플러스 모델이 원더조이를 설명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해외 통신사와 협력해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여가 혜택 확대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여행 멤버십 서비스 원더조이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원더조이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유플러스 모바일 이용 고객에게 쇼핑·외식·교통·숙박·액티비티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의 제휴 쿠폰 혜택에서 나아가 방문 국가 통신사들이 발굴한 제휴 혜택을 공유하는게 특징이다.

이는 글로벌 통신사 협력 플랫폼 '원더조이 트래블 얼라이언스'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LG유플러스가 한국 파트너로 합류한 얼라이언스에는 ▲일본 KDDI ▲싱가포르 싱텔 ▲홍콩 HKT ▲태국 AIS ▲대만 타이완 모바일 ▲필리핀 글로브 ▲인도네시아 텔콤셀 ▲호주 옵터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일본·싱가포르·인도네시아·홍콩·대만·태국·필리핀 등 해외 7개국에서 다양한 여행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 돈키호테는 구매 금액의 최대 7%를 할인 해준다. 빅카메라는 면세 10% 할인에 더해 추가 7%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그랩 트래블 패스는 공항 이동 시 50% 할인 등을 제공한다.

고객들은 LG유플러스 통합 앱 유플러스 원의 해외로밍 메뉴에서 원더조이를 이용할 수 있다. 최초 이용 시 약관에 동의하고 여행할 국가를 선택하면 이용 가능한 혜택을 확인하고 현지 제휴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원더조이 출시 기념 혜택도 제공한다. 일본 로손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한 500엔 쇼핑 이용권 등이 있다. 로밍 상품에 가입하고 원더조이 쿠폰을 내려받은 고객에게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3000원을 제공한다.

이번 상품에 해외여행보험 서비스도 연계했다. 고객은 유플러스 공식온라인스토어 또는 공식 앱 해외로밍 메뉴에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해외여행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여러명이 함께 가입하면 최대 10%까지 할인률이 더 커진다. 또한 사고 없이 귀국할 경우 납입 보험료의 10%(최대 3만원)를 돌려주는 '안전귀국환급' 혜택도 있다.

앞으로 원더조이 혜택은 해외 출국 고객을 포함해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제공된다. 양방향 글로벌 여행 멤버십을 통해 관광객들은 LG유플러스가 발굴한 성수·한남·명동 등 국내 주요 핫스팟의 제휴 혜택과 여행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조민선 기자

LG CNS, 'AI지니어스 아카데미' 시상식

고교생 진로 설계형 프로그램

LG CNS는 지난 20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 본사에서 'AI지니어스 아카데미 챌린지데이'를 열고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AI지니어스 아카데미는 LG CNS가 운영하는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의 진로 설계형 AI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올해 행사에 참여한 고교생은 약 1300명으로, 2021년 프로그램 시작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수상한 학생들은 약 1년 동안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코딩 교육을 받은 뒤 팀을 꾸려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직접 기획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LG CNS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받는다.

이날 챌린지데이에서는 학생들이 개발한 AI 서비스를 시연하고 우수팀을 선정했다. 올해 총 161개 팀 가운데 10개 팀이 시상에 참여했다. AI, 사회공헌 분야 외부 전문가와 LG CNS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학생들이 제출한 개발 결과물과 시연 및 발표를 평가했다.

대상은 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개발한 안심 귀가 서비스 '귀가 ON'이 차지했다. 귀가 ON은 주변 안전 정보를 바탕으로 보행 경로를 추천하고, 보호자에게 귀가 소식을 전달하는 서비스다.



LG CNS가 개최한 'AI지니어스 아카데미 챌린지데이'에서 대상을 수상한 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AI 안심 귀가 서비스 '귀가 ON'을 시연하고 있다. /LG CNS

최우수상은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우수상은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각각 수상했다.

이 밖에 학생들은 부동산 계약 시 AI가 위험 요소를 미리 알려주는 AI 안심 주거 서비스, 어르신의 정서적 교감과 인지·신체 재활을 돕는 탁상형 휴머노이드 로봇, 화재 발생 시 진동으로 최적의 경로를 안내하는 시각장애인용 AI 지팡이 등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AI지니어스 아카데미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약 3000명의 고등학생에게 교육을 제공했으며, 참여 학교는 약 180개교에 이른다.

/조민선 기자

공공기관 필수정보 '헬로tv뉴스'서 확인

LG헬로비전, AI로 공공데이터 수집
전국 CCTV 연동 안전 골든타임 확보

LG헬로비전은 지역채널 '헬로tv뉴스'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해 공공기관의 필수 정보를 전달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사 측은 AI로 공공 데이터를 수집·가공해 지역 내 정보 영역을 넓히고, 또한 현장 기자의 심층 취재를 강화해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뉴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AI를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보다, 새로운 정보 영역을 여는 확장의 도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국토교통부, 국립공원공단 등 공공기관의 방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수집·분석해 지역민의 실생활과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지역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 정보 전달 체계를 AI로 고도화한다.

전국 8000여 곳의 CCTV 화면을 실시간 연동해 산불 및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현장 영상을 특보에 즉각 노출한다. 재난 발생부터 특보 송출까지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지역민 안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동네 밀착 콘텐츠를 대폭 늘렸다. AI를 활용해 대표 콘텐츠 '우리동네NOW'에서 보도하는 지자체 및 지역 단신 소식을 음성 변환해 송출한다. 사진·영상 자료를 찾아 매칭해 제작하면, 사람이 검수해 수시로 방송에 내보내는 방식이다.

새로운 콘텐츠도 소개한다. 공공기관의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주말 나들이와 지역 명소를 소개하는 '축제NOW 여기어때' ▲지역 주요 이슈를 빠르게 전하는 숏폼 뉴스 '숏픽NOW' ▲날씨 연계 생활 정보를 전하는 '날씨와 생활' 등이 대표적이다.

/조민선 기자

안랩, 디지털 포렌식 분야 전문성 입증

'KDFS 챌린지 2026' 우수상

안랩은 지난 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KDFS 챌린지 2026'에서 자사 연구 인력이 참여한 '먼데이'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KDFS 챌린지는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가 2014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디지털포렌식 문제풀이 대회다. 올해는 일반(민간)·공공·학생 트랙으로 나눠 랜섬웨어 감염, 정보 유출, 가상자산 탈취 등 실제 보안 사고와 수사 사례를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 역량을 평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안랩 소속의 김승학 A-FIRST팀 매니저와 이준규 A-CERT팀 매니저는 타사 구성원과 함께 먼데이(Monday)팀을 꾸려 전체 3위, 일반 트랙 1위로 우수상(경찰청장상)을 받았다.

특히 제한된 시간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방대한 데이터를 해석하고, 다양한 디지털 증거 간 연관성을 파악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사실관계를 규명해내며 실전 분석 역량을 발휘했다.

안랩은 KDFS 챌린지에서 2024년 우수상, 2025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에 성공하며 디지털 포렌식 분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설명이다.

/조민선 기자